

녹동농협 여성대학 수료식 개최



녹동농협(조합장 양수원)은 최근 고흥군 도양읍 농어촌복합체육관에서 '제 7기 여성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녹동농협 제공>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장현서)은 지난 1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완벽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017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제공>

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달임 행사



투게더광산 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이주민 5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잔치를 열었다. 삼계탕 잔치는 익명의 독지가가 생닭 120마리를 후원한 덕분이다. <월곡 2동 제공>

광주상의 일·생활균형 추진단 업무 협약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상의 소의원회의실에서 광주지방공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일·생활균형 광주지역추진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상의 제공>

“일제강점기, 스스로 성장하려한 한국 조명”

‘한 권으로 읽는 실록’ 시리즈 21년 대장정 마무리 박영규씨



마지막 권 ‘일제강점기실록’ 출간

전체 시리즈 300만권 팔려

“역사 대중화 일조 자부심”

1996년 3월 출간된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은 그해 연말까지 30만 권이 팔리면서 서점가를 휩쓸었다. 저자인 박영규 씨가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출판인이라는 점도 화제였다.

지금까지 200만 권이 팔려 나간 ‘조선왕조실록’ 인기에 힘입어 ‘고려왕조실록’ ‘고구려왕조실록’ ‘백제왕조실록’ ‘신라왕조실록’ ‘대한민국 대통령실록’이 잇달아 나왔다. ‘한 권으로 읽는 실록’ 시리즈는 이번에 출간된 ‘일제강점기실록’으로 21년의 대장정을 끝냈다.

박영규 작가는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별로 없었는데 ‘한 권으로 읽는 실록’을 일제강점기 편까지 펴내면서 마무리한 셈

이죠. 역사의 대중화에 제 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전문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하나의 교양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이번에 출간한 ‘일제강점기실록’ 편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미루고 미뤘던 작업이다.

“일제강점기를 독립투쟁사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는 새로운 문물이 한국에 들어온 격변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수탈당하고 핍박받고 엄청난 피해를 본 부분도 그대로 자세히 전달해야겠지만,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개화기로 보고 개화기 35년과 식민통치기 35년으로 구성한 것도 ‘한 권으로 읽는 일제강점기실록’의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해동불교신문과 산하 해오름출판사 편집장을 겸했던 작가는 평소 역사 공부에 흥미를 느꼈다.

“조선은 당쟁하다 망한 나라’라는 것이 대다수의 인식이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룬 내용이 아시아거나 TV 드라마에서 본 궁

중 압투, 왕의 여성 편력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실록이라는 것을 통사 형태로 정리해 보자고 마음먹었죠.”

책이 나올 당시 KBS 1TV에서 사극 ‘용의 눈물’을 방영하기 시작한 것도 호재였다. 그는 ‘한 권으로 읽는 실록’ 시리즈가 300만 권 가까이 팔린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에서도 이 시리즈를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사 관련 출판물이 소개되는 일이 좀처럼 적은 일본에서도 ‘조선왕조실록’과 ‘대한민국 대통령실록’이 번역됐다.

“국정교과서 형태는 말이 안 되고 검정 형태라도 한 교과서만 선택하는 건 역사 교육에 적당하지 않아요. 역사는 교과서 한 권에 육여늘 가라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한 권으로 다루려 하죠. 또 여러 명의 저자가 참여하다 보니 필체도 일관성이 없고 시각도 일관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각각 20권 정도의 필독서를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서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역사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동강대, 지역 어르신 대상 건강 프로그램 진행

동강대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어르신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동강대(총장 이민숙) 사회체육과는 지난 7월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개설됐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북구보건소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나눠 ‘내 몸이 즐거워지는 당뇨·고혈압 교실’을 운영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높아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건강 운동교실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령과 짐볼을 이용한 보디 펌프, 캐틀벨을 이용한 타바타(20초 운동 후 10초 휴식), 복근 집중훈련 등이다.

노재성 사회체육과 학과장은 “폭염에 힘겨워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교수·학생들이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탐정연합회 광주전남지회 김삼선 지회장 선임

공인탐정제도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창립한 대한탐정연합회 광주전남지회에 김삼선(65·사진)씨가 선임됐다.

광주전남지회에는 전직 경찰, 군 헌병대 장교, 정보기관 출신 등 약 4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회 등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중이다.

경찰 경력 34년인 김 지회장은 경감으로 정년퇴직 후 전남도립대 객원교수(경찰경호학과·이학박사)로 활동중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합법화 과정을 추진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김한영 의원 등 10명이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합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

김 지회장은 “공인 탐정은 부정적인 의미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달리 합법화가 되면 국가가 관리하는 민간 조사 전문가는 일반 시민들의 권리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종자, 미아 등의 소재 파악과 민사 사건의 물증 확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금오도서 ‘중학생 섬thing 캠프’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며 미술, 음악, 사진·영상, 요리 등 다양한 예술작업을 자유롭게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남문화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전남지역 중학생 1~3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여수 금오도에서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섬thing 캠프’를 추진했다. <사진> 이번 캠프는 ‘별난 청소년과 별난 예술가가 만나 별난 섬 금오도에서 보내는 2박3일의 별난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수 금오도 캠핑장에서 열렸다.

첫 날인 10일에는 여수 금오도 비랑길(비랑길) 트레킹을 하며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10대의 비랑길은’이라는 주제로 전통등을 만들어 섬마을의 밤을 빛으로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섬 주민 김관숙(75세)·이정자(71세)씨가 요리 강사로 나서 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여수 금오도 특산물인 ‘방풍나물’을 직접 캐고 방풍나물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마을 풍경과 캠프 활동을 직접 카메라로 담아 영상작품을 만들고 마을 주민을



초대해 ‘별난 페스티벌’을 열어 금오도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조별 체험활동과 캠프 참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캠프를 마무리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임형철(정광교 교장)·김욱자씨 장남 성열군(군법무관) 오현곤(사업)·이수영 씨 장녀 윤미양(치과전문의)=19일(토)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동창회

▲재경 장학 용산중학교 제10회 동창회 =26일(토) 오후 6시, 명 대저갈비(서울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문의 010-2363-0124.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훈·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

222-9976.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

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서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청제가 정기요양기관 회원=장기

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 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실천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부음

▲안방순씨 별세 안주선·경미씨 부친 상 김진주씨 시부상 양석진씨 부부상=발인 16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김소부씨 별세 문재욱(전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장)씨 모친상 김난숙(진남초교장)씨 시모상=발인 16일(수) 광주 학동금호장례식장 010-2612-6056.

▲반송철씨 별세 방창주·창석씨 부친상 최미란씨 시부상 김명숙씨 남편상=발인 17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之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김남익 남(여/84세) 子/子婦: 정삼연/이은희 女/婿: 정경남, 정승/이진섭, 연승, 연이/전수령 영숙, 영애/이호준 *발 인: 8월 17일 *장 지: 내남동 선영 *연락처: 227-4381	301호 故김소부 남(여/97세) 子/子婦: 문남용/김용순, 남수/조경덕, 재옥/김난숙 女/婿: 문남남/최순섭, 남예/강병욱, 춘반/조철준 순의/송문경 *발 인: 8월 16일 *장 지: 장흥정령 *연락처: 227-4382
401호 故홍미자 남(여/65세) 子/子婦: 김태관/박소라 女/婿: 김기영/소상우 夫婿: 김만기 *발 인: 8월 16일 *장 지: 불문사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조순덕 남(여/65세) 子/子婦: 김병관/김분희, 김익영/주영미 女/婿: 김영희/나승기 *발 인: 8월 17일 *장 지: 망월역 *연락처: 227-4314
101호 故전정자 남(여/76세) 子/子婦: 장병길, 장명조, 장명호/박희정 *발 인: 8월 1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000	

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